

소문 사람이 먼저는 잘못이 있다라고
뒤에는 삼가 다시 짓지 않으면, 그
는 능히 이 세상을 바꾸리 님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法和源·세속품 172절)

東大新聞

발행일	1993년 8월 25일
발행처	경주대학교 동대신문사
발행인	김갑주
편집인	김갑주
주필	김갑주
편집장	김갑주
인쇄	경주대학교 동대신문사
주소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707-710(257)
팩스	707-710(257)
이메일	707-710(257)

제 1128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3년(단기4326년) 8월25일 (수요일) [1]

총학생회장등 9명 중징계 조치

2학기 학내사태 포류 예고

학교당국이 지난 6월11일 교무위원회를 통해 결정, 18일공고한 최순호총학생회장등 9명의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이후 2학기에 일어날 학내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는 최총학생회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가 제적조치됐고 이영조 문과대학생회장 등 4명이 무기정학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징계가 결정, 공고되자 식립회와 대학원학생회는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7월 조계중 중회의에서 구성된 중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최조)측도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선 징계철회, 후 사태해결 논의 방침을 학교당국에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징계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징계 70여일이 지난음에도 여전히 징계교수의 강경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총학생회는 '징계의 조건없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오는 26일 '부당징계철회 및 총학에서 승리를 위한 1만 동학 결의대회'를 상

정하고 있으며 오늘(25일)부터 징계철회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징계철회 투쟁과 함께 펼칠 2학기 재단 정상화투쟁을 지난 24일 학생회관 상설전시장에서 비상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2학기 투쟁방향을 설정해놓았다.

비상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학생회 투쟁방향을 논의한 50여 학생대표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등교중 총학제외와 등교금 거부투쟁을 통한 대중력 확보와 징계철회, 재단투쟁에 역량을 집중키로 결의를 모았다.

이날 논의된 2학기 투쟁 중심시조는 1학기 중심적으로 내걸었던 '민중동국중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학원자주화투쟁의 성과를 정리해내는 재단정상화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2학기 재단정상화 투쟁에 대해 김수정총학생회장은 "무능·부정비리 이사회진 투쟁과 더불어 전공과목 개편 등 제도과 제정의 대대마련을 제기해나가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이사퇴진 재단은 지난 7월23일 타워호

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재구, 정재철, 황진경 이사를 사퇴시키고 새이사로 황명수씨등 3인을 영입했다. 이미 최재구, 정재철, 황진경이사는 학생들의 문제제기 대상이었고, 이를 재단이 부분수용했다는데 학생들은 큰의미를 두고 있고 재단변화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박현성, 김갑주이사등 4-5명이사의 추가사퇴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학기 전망

징계철회여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3차회담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또한 총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구체화 된것으로 보여 이사회장, 동창회장과의 연대체제가 2학기 학내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주목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2학기를 전망하는 데 있어 징계철회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 징계철회의 명분으로 우선 되기 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실리적 징계'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높은게 사실이다.



'할말 있다' 지난 16일 경주에서 열린 2학기 학사보고회에서 최순호 총학생회장이 발언 기회를 요구하다 교수와 직원들의 저지로 회의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전철철 기자>

남경·청화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본교 정용길(정치외교학)기획조정실장과 김영철(경주캠퍼스 중문학)교수는 지난달 27일부터 8월3일까지 중국을 방문, 남경대학 및 청화대학과 각각 27일, 29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본교는 이 두대학과 1년간 체제비 전액 지급하여 정기적으로 교수등 학자들을 상호 파견하여 학술교류 영역을 확대 심화시키고, 석·박사과정 학생 상호 교류와 문헌·자료의 교환을 합의했다.

이번에 본교와 협정을 맺은 청화대학과 남경대학은 작년 중국 교육부 평가에서 1천여개 중국대학중 3위 이내에 드는 저명한 대학이다.

홍승기(무역학)국제부장은 "두대학과 학술교류협정에서 평등과 호혜의 입장에 입각했으며, 실질적인 교류를 증시하고 향후 한·중대학간 학술교류의 초석이 될 점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협정체결 의의에 대해 홍국제부장은 "협정체결로 인해 중국내에서 본교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내 불교 연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협정체결로 본교의 해외자매대학은 6개국 16개교로 늘어났다.

본교는 이 두대학과 1년간 체제비 전액 지급하여 정기적으로 교수등 학자들을 상호 파견하여 학술교류 영역을 확대 심화시키고, 석·박사과정 학생 상호 교류와 문헌·자료의 교환을 합의했다.

이번에 본교와 협정을 맺은 청화대학과 남경대학은 작년 중국 교육부 평가에서 1천여개 중국대학중 3위 이내에 드는 저명한 대학이다.

홍승기(무역학)국제부장은 "두대학과 학술교류협정에서 평등과 호혜의 입장에 입각했으며, 실질적인 교류를 증시하고 향후 한·중대학간 학술교류의 초석이 될 점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협정체결 의의에 대해 홍국제부장은 "협정체결로 인해 중국내에서 본교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내 불교 연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협정체결로 본교의 해외자매대학은 6개국 16개교로 늘어났다.

본교는 이 두대학과 1년간 체제비 전액 지급하여 정기적으로 교수등 학자들을 상호 파견하여 학술교류 영역을 확대 심화시키고, 석·박사과정 학생 상호 교류와 문헌·자료의 교환을 합의했다.

이번에 본교와 협정을 맺은 청화대학과 남경대학은 작년 중국 교육부 평가에서 1천여개 중국대학중 3위 이내에 드는 저명한 대학이다.

홍승기(무역학)국제부장은 "두대학과 학술교류협정에서 평등과 호혜의 입장에 입각했으며, 실질적인 교류를 증시하고 향후 한·중대학간 학술교류의 초석이 될 점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협정체결 의의에 대해 홍국제부장은 "협정체결로 인해 중국내에서 본교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내 불교 연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협정체결로 본교의 해외자매대학은 6개국 16개교로 늘어났다.

출입자 관리 시스템 정상 가동 새 바코드레벨 부착해야

중앙도서관(관장=김보환·경향행정학)은 지난 6월10일 가동할 예정이었던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바코드와 출입 통제기의 이상, 출입 관리자의 부족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정상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신입생은 도서관 출입 즉시 2층 대출창구에서 새 바코드 라벨을 현 학생증에 부착해야 한다.

도서관 열람과 집중체결장은 '출입자 관리 시스템' 정상 가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학생증

소지의 습관화와 외부인 동행 자제' 등을 당부 했으며 "학생증 바코드의 관동 여부 확인후 불람일때 장학과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열람계장은 학생들에게 "31일까지 실시되는 하루 1~2시간의 시험가동중 학생들의 불협조로 지인과 많은 마찰을 맞고 있다"며 "학생들의 요구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성숙적 정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영배(국문학)=지난 7월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미시간대가 주관하는 학술회에서 '선가 귀감 언해본의 언어적 성격'이라는 주제로 발표.

▲조영록(사학)=중국 명사학회 주관하는 제5회 명사국제학술토론회에 지난 14일부터 오늘(25일)까지 참석하여 '명대 정치·제도·경제·문화 및 명대 기타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

본 사 사 랑

◇의원면적
▲김갑주(문과대 특문2)
(이상 8월1일자)

경주 부총장 김갑주교수 임명 총장 "교수직선제 성격 아니다"

학교당국은 지난 14일자로 경주부총장에 김갑주(국사학)교수를 임명했다.

올해초 교수회 선출 후보 1순위였던 김교수는 학교측에서 김시배(경제학) 교수를 선임하면서 경주 교수회의 강한 반발이 계속됐다.

한편 이번 부총장임명과 관련하여 지난 16일 교수총회에서 민병천 총장은 교수회 추천후보 선출제도의 안착화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냄으로써 교수회직선에 관한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총무처(처장=홍명백·사학)는 지난 20일로 마감된 1차등록률

본사 신입 편집국장 이의성

학교당국은 본사 신입편집국장에 이의성(전 사회과학대 교학계장)씨를 지난달 29일자로 발령했다.

본 사 사 랑

◇의원면적
▲김갑주(문과대 특문2)
(이상 8월1일자)

보수

문명의 이기를 한껏 누리려는 현대인에게 잘 정리 정돈 된 포장은 훌륭한 출생시에 별다른 신경쓰고 맡게 없다. 신경을 쓰지 보다는 무료하기 일쑤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평음에 가까운 노래가락을 벗삼아 곡조를 누비는 유희족의 군상을 보게도 된다.

羅氏要覽 권하 八象條에 經行이라는 말이 있다.

인도는 습기가 많아서 그냥 걷기에는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벉들을 포개어서 길을 내곤 하였다. 그 길 가운데를 가

경행(經行)

이런 연유로 수행자가 한 발짝을 내디딜 때에 경행을 하는 것이다. 베 나는 아낙의 섬세하고도 정성이 깃들인 손 놀림 아저 벉들을 내딛는 거품의 조심스러움이 일거수 일투족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선 수행은 전문으로 하는 禪院에서는 수행자가 禪頭를 參究하는 시간은 물론이겠지만 그 나머지 찌뿌리 시간, 어떤 곳

산에서 낳았기에 산에서 살다가 하는가 보다 하고 遶本處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출가자의 본분에서 보면 산행에서 체이는 돌 뿌리의 끝에도, 졸졸 흐르는 계곡의 물줄기에도, 푸르름을 만끽하고 이제 흥조를 띄어 가는 나무잎에서도도 경행의 觀照가 있어야겠다.

주변에는 이런 이들이 종종 눈에 띈다. 알량한 스트레스를

천 사람에게 물어 한 사람의 人才를 구한다

이 땅을 지난 젊음들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는 곳, 바로 코오롱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재산은 없다! 이것이 코오롱의 믿음입니다.

지난 1957년 회사의 첫 삼을 뜬 후 35년이 지난 오늘, 섬유분야는 물론 화학, 기계, 전자, 무역, 건설, 엔지니어링, 정보통신·보험·유통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21세기 한국경제의 뉴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코오롱. 코오롱 35년은 기술개발과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 사람에게 물어 한 사람을 구하는 정신으로 꾸준히 인재를 키워온 '인간투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코오롱만이 "실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드문 사람들"로 평판이 난 것도 바로 이같은 코오롱의 '인재제일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국제화에 앞장서는 인재육성을 위해 큰 야망을 품은 진취적 인재들 등을,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는 일터. 각자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보람의 일터' 코오롱!

경자 한국경제의 동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젊음의 야망과 투지를 마음껏 꽃피우고 싶으십니까? 코오롱으로 오십시오. 당신의 '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릴의 여론조사 수강 정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당국 신청 근거 마련 시급

학생, 신중한 자세 필요

본사 여론매체부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학교발전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매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이번 달에는 서울경주 학생 3백39명을 대상으로 수강정정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방식을 취했으며 분석은 서울컴퓨터 통계조사연구회(DUSSA)에서 도움을 주었다.

설문에 응해준 모든 학생들과 자료분석을 담당해준 통계조사연구회에 고마움을 전한다. (편집자)

교무처(처장정병호·국민윤리)는 지난 6월 2학기 수강신청시 강의계획서를 학년당 2권씩 배포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의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

해 수강신청정정기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총학생회(회장최순호) 중앙운영위원회는 강의계획서의 부실과 수강신청기간이 3일밖에 되지않는 점을 들어 교무처의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맞서며 수강신청정정기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교 학생들의 수강신청의 선택기준과 수강정정기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들어보았다.

먼저 수강신청시 가장 중점을 두는것은 강의내용(167명), 강의시간(98명), 학점(62명)순으로 나타나 수강신청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우선함을 알 수 있다.

수강정정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엔 ①있다(250명)가 ②없다(85명)보다 많은 답이 나왔고 그 이유에 관한 대답은 과목변

오늘을 사는 동국인 — 랑승만 시인



신우당(信友堂) 장애인 불교 문학회 회장 랑승만. 입원이라야 화장 혼자하고, 조그마한 자택이 사무실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청하는 문학 장애인을 도우며 벌써 7년째에 접어들다. 59년 본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술'이라는 시로 문학계에 등단한 이후 '이 따뜻한 슬픔의 시간에 푸른꽃 한송이' 등 시집을 내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 온 랑승만은 80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쪽 팔을 쓸 수 없는 반신불구의 몸이 되었다.

반신불구의 상태에서도 여섯권의 시집을 내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면서 전북 고창에 살았던 전신마비 장애인인 '산골소녀 육신'을 비롯해 시집을 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준 장애인이 10여명에 이른다.

"부처님의 사도로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세상에서 외면당한 장애인을 돕고 있습니다."라며 랑승만은 장애인 돕는일에 만족함을 나타내면서도, 어느 후원단체뿐만 아니라 동문회조차도 도와주지 않음을 안타까워한다.

지난 90년도부터 랑승만은 장애인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자택에서 병상 시화전을 하고 있다. 한편 입구에서부터 세악곡·그림 등으로 꽂은 자택이 작품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출판사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던 랑승만. 하루빨리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동/문/칼럼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와 애플 컴퓨터 회사는 우리 귀에 게도 익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 관련 업체이다. 얼마 전에 이 두 회사 간에 법정 분쟁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마이크로 소프트 사에서 개발하여 크게 히트한 MS-WINDOWS라는 소프트웨어였는데, 저작권 침해로 이유로 애플사가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상대로 50억 불 손해 배



이덕열 (미디어뱅크 출판사·행정비서관)

정보전쟁 첨병 후배들 활약 기대

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MS-WINDOWS에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채용함으로써 매킨토시 컴퓨터의 Look and Feel을 모방했다는 것이 애플사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은 사상 최대의 저작권 여파까지 확대되느냐와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가 Look and Feel이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만약 애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마이크로 소프트 사는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이 재판은 저작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세계는 저작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저작권법이 있어서 우리 국민의 저작권은, 물론 외국인의 저작

물법 복제물 단속, 비디오 테이프 대여권 문제, 유무과외 라운드 협상에서 빠지지 않는 지적 재산권 문제, 심지어 며칠 전에 앞으로 일본 상품 중에서 수입 제한 품목을 중적으로 뽑았다고 할 때도 저작권 문제가 언론에서 다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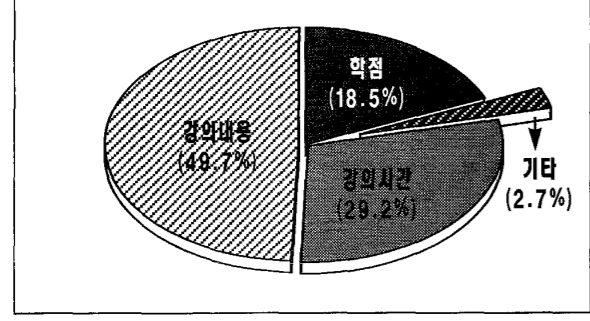
나는 얼마 전까지 지적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다. 지적 재산권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따위의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한 말이라는 것, 그리고 위에서 나열했던 것들이 모두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어 요즘 특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안것도 최근이었다.

세계는 저작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저작권법이 있어서 우리 국민의 저작권은, 물론 외국인의 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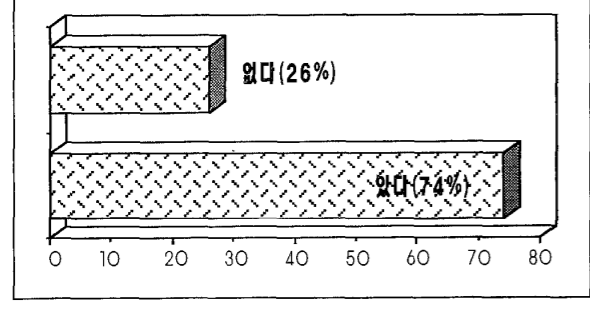
흔히 21세기에는 경제 전쟁을 지나 정보 문화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쯤이면 정보문화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지적 재산권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깊고 있다. 훨씬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 문명과 직접 닿아있는 세대는 지금의 젊은이들이다.

오래 된 이야기지만 모교 후배들이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언론이 이를 오프라인으로 접이 못했다. 젊은이들이 문화 정보 전쟁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우리 후배들과 같이 계속 노력을 한다는 기록 개발의 과제가 드물고, 문화 정보전쟁이 시작되었다 해 볼 만할 것이다. 21세기 전쟁의 첨병으로서 우리 후배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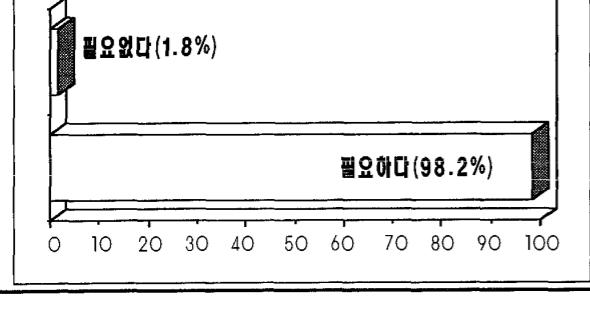
1.수강신청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2.수강 정정 경험



3.수강정정기간의 필요성



- 수강 신청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 강의시간 98명 (29.2%)
 - 강의내용 167명 (49.7%)
 - 학점 62명 (18.5%)
 - 기타 9명 (2.7%)
- 수강 정정의 경험은 있는가?
 - 있다(2-1로) 250명 (74%)
 - 없다 85명 (26%)
- 2-1.수강정정의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 강의시간의 중복 55명 (22.4%)
 - 수강 신청의 누락 17명 (6.9%)
 - 과목변경 146명 (59.3%)
 - 기타 28명 (11.4%)
 - 비해당 88명 무응답 5명
- 수강정정의 기간은 필요한가?
 - 있다(3-1로) 332명 (98.2%)
 - 없다(3-2) 6명 (1.8%)
- 3-1.필요하다면 적당한 기간은?
 - 1주일 미만 25명 (7.5%)
 - 2주일 49명 (14.7%)
 - 3주일 246명 (73.9%)
 - 기타 13명 (3.9%)
 - 비해당 6명
- 3-2.필요없다면 그 이유는?
 - 시간 부족, 재원난비 이므로 1명 (14.3%)
 - 수강 신청 기간중에도 충분 48 (71.4%)
 - 수강 신청의 지료가 충분 1명 (14.3%)
 - 기타 0명 (0%)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민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본질 가려진 대전엑스포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요즘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얘기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대전 엑스포에 관한 것이다. 특히 내가 속해있는 단대가 과학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과대에서 그런지 학생들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별 관심이 없었던 나로서도 자연히 관심이 쏠리는게 사실이고 이 글을 쓰는 계기로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대전 엑스포의 허와 실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다.

대전을 찾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찾는지 모르지만 단순한 구경거리를 보러가는 것이 아닌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관람을 하기를 바란다.

올림픽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라고 불리는 대전 엑스포는 대외 총속과 강대국의 기술진보 속에 헤어나 갈 없는 난관에 봉착한 우리 과학기술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시대의 이정표라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부터 슬픈 문제들을 안고 있는 대전 엑스포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문제는 이미 작년 초 종합 박물관과 전문 박물관이 각각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개회되었다는 데 있다.

어떻게 보면 1년만인 93년도에 대전 엑스포 개최가 결정되었는지 매우 의문이다. 국제규약에도 없는 중복개최로 인해 당연히 참여의 열기가 반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애초에 30만 명의 외국인 관람객을 예상했던 것이 그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때 과연 대전 엑스포가 국제행사인지 아니면 우리들만의 안방잔치인지 모르겠다.

대전엑스포의 문제점을 또한 심각하다. 소규모의 전문박물관치고는 지출이 8800억과 맞먹는 수준으로 너무나 과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기술을 쓰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부지선정의 결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용이라는 부제가 적당히 얹어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그 문제점으로 들 수 있었다.

엑스포와 같은 국제 행사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갖고 있고, 여러모로 득이 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요란한 치장과 말의 난무속에 가려진 우리의 현실, 그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결코 대전엑스포는 우리 과학기술의 이정표는 되지 못할 것이다.

김덕현 (이과대 통계학과)

소홀한 신설과 육성책 전학년 강의계획서 부재

후에 들은 얘기지만 전산통계학과 신설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아무리 사전준비도 없이 학과 신설하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이유였다고. 올바른 교육을 열려는 이들의 우려대로 우리 입학실부터 우왕좌왕해야 했다. 다른과처럼 자기네것이라 할만한 강의실도 없었고, 어디 모이라고 알려주는 이도 없었고. 그래서 입학식을 하지 않던 일이 지나도록 심하게 자취파티(선배가 없어서 신입생원외라곤 할 수 없으므로) 함께 조차도 다 모이질 못했다. 다른 학과는 화회들이다 씨름들이다 해서 많이도 가졌던데 학교의 그

어느 공간도 전산통계학과라는 이름이 쓰여진 곳이 없었다. 다 행하고 8월16일엔 준공식을 가진 자연과학관에 우리 과목이 두개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왕 우리 공간을 줄거면 원래 착공일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게 옳지 않음. 그런데 4층에 들어가는과는 전산과, 수교과, 전·통과라는 세 수교과가 4층에 배치된다는 건 내년에 우리 과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냥 눈앞에 놓인 사전계획에 급급해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학교당국의 생각이던 것 같아 아무튼 더 두들길 것이다.

중합강의계획서에도 학교의

목욕골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경

■8. 22 DUBS의 35기 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DUBS 35기 동기를 정말 정말 축하해.

—현준선배가

■경영4 최윤정의 생일이였다. 광복절 하루를 쓰잘데기없이 보낸 너의 탄생일 잊지않았잖아.

—너의 파트너가

■독문과88학번 '김현승' 생일 축하합니다.

—잠심

■아니 사랑스러워 커뮤들이 '93 항주(16) 홍영이(19), 경란이(22)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언제나 건강하사.

—92 현준선배가

■지난7월 24일은 2학기과대 김선영의 생일이었네요. 축하하기 왕후가!!

8월27일 남자겨북이의 생일을 축하해!! —지교93 Shin

—후배일동

■우리의 자랑스런 통일선봉대 동지 정혜원양의 생일을 엄중하게, 전투적으로 축하합니다.

—문과대 부녀선봉대

■우리 독문과 '92의 버라이어티 팬씨의 생일을 경축하며.

—원표 유, 홍식, 윤호로 독문과 '92, 호예도, 재성(이. P.S.실업고 졸업생), 수호도—

■홍식이, 주영아, 그리고 승훈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물 없는거 알지! 마음이 중요하잖아.

—93동기 혜

사설

용두사미의 교훈

얼마전 한 불교계 신문은 현재 학교 당국이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로 구성된 동국발전협의회를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동국의 단성방을 꼬집었다.

"30년의 정에서 벗어나 옛정성하기에 시도를 한 동국발전협의회의 움직임은 환영할 일이나 항상 동국대의 일은 '용두사미'가 된다는 저간의 비웃음을 섞인 충고를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의도가 어찌됐던간에 우리는 '용두사미'라는 지적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사실 학교발전추진을 위한 시도는 대부분 처음 의도에서 어긋나 뚜렷한 성과를 드러내지 못한채 기구자체가 자연해체 되다시피한 오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신문의 기사는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다음 충고에서 역설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국대는 이번을 계기로 종단·재단·교수·학생·동문들이 합심하여 목적정신하는 자세로 나설때만이 동국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당위적인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용두사미'를 예견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동국발전협의회는 학생들을 제외시키고 있어 구성원의 합심된 자세로 동국중흥의 과제를 이행하는것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11년만에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학사보급위원회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은 동국중흥을 위한 합심된 대의가 깨진 일이었다. 지난 6월18일 학교당국으로부터 제적조치 대상자에 포함됐던 건부 4명은 학사보급위원회에 나와 발언을 요구하자 몇몇 교수들에게 제지당했으며 끝으로 퇴장당했다.

그 와중에 학생회 건부들에게는 심한 욕설과 폭언이 쏟아졌다. 또한 이날 학생회 직원들의 징계철회 공식요구도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28일에는 총학생회장이 5명의 제적이 학교결정이 끝나 병무청에 보고 됐으며 제적생중 4인은 강제징집 대상자에 포함됐다.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이들에게 학사정계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징계조치와 앞서말한 징계이후 나타난 일들은 징계가 순수한 교육차원이었어야 한다는 취지에 흠집이 가게 한다.

이는 6월18일 학사정계 공고이후 공식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 병무청 신고가 40여일이나 지난 7월28일야에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의문에서 시작된다. 40여일동안 이미 결정된 사안이 미뤄진다는 행정상의 문제도 있었겠으나 학사사태가 악화됨은 동국가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 구체화되고 성공할 것이다. '용두사미'의 경계에 학교당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당국과 재단은 극단론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학생들이 제기했던 순수한 문제 제기들이 '용두사미'로 덮어버리려는 의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좀더 어른다운 자세로 징계철회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용두사미의 교훈이다.

5.6공 두개의 정권을 거치면서도 실시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가 지난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하여 전격 실시되었다. 지난 82년 말 통과 되었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코자 하였던 실명제는 수많은 논란과 두번의 살서유보 진통 끝에 대통령 긴급명령 형태로 바뀌어 실시 제 1단계에 맞게 되었다.

이제 실시와 관련한 불필요한 국력소모는 더 이상 없게 되었고, 실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의 계기로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게 되었으며, 신정부의 개혁도 제도의 뒷받침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정치사회적인 변화까지도 수반되는 광범위한 경제개혁조치로서 앞으로 나타날 변화와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실명제 실시는 또한 경제사회전반에 걸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명제 충격은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가장 걱정됐던 증시는 일시적인 대폭락에 진정의 기미를 찾고 있어 실명제의 장기적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추가폭락전망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현 정권에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발표와 지금이 부동산이나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어서 증시에 '자금이 몰리는 점과 실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에 따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증시가 진정회복국면을 보이고 고위험자산도 또한 증가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추가 상승이 경제가 회복하여 기업의 내재가치가 증가하리라는 기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는 없으나 이것이 주식시장 이외에는 자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증시로만 모든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면 왜곡된 현상으로 비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증시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계좌잔액 약 2조원 정도를 포함하여 차관, 도명등의 총 비실명 금융자산 규모는 약 30조로 추정된다고 한다. 현재로는 이 자금이 어떠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으나 인건가는 수의일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쪽에 매리트가 있도록 하여 이 자금이 산업투자분화하도록 활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동결되어 문제가 없으나 이렇게 인위적인 억제조치와 조사권 발동으로 계속 위축되게

전격적인 조치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게 되었으므로 충격조치는 삼가는 것이 좋다. 인물은 실명제의 휴유증에 대한 집중적인 과감한 보도를 삼가하고 정부는 화해개혁실같은 각종 루머가 돌지 않게 하며 정책의 수렴과 집행에는 일관성을 가지고 투명하여야 한다.

둘째, 실명제 실시발표에서 정부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실명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자금출처 조사등을 통하여

넛계, 이번 조치에서 한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명실공히도 지금이 부동산 투기로 호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상향 조정하여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낮추어 부동산 보유유인을 없애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선진국 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높힐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실명제의 조치로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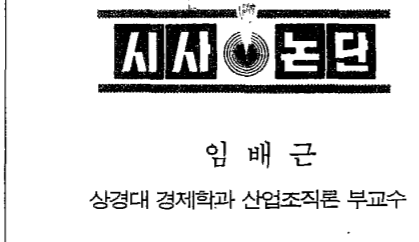
물론 성장률, 실업률, 물가, 수출증가율 등의 거시경제지표상에서 올해 목표치에 미달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현재 엔화 상승으로 수출경쟁력도 다소 회복하고 있는 만큼 너무 단기간 시각으로 목표달성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실명제 장기위축이 있다 하여도 실명제 영향만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며, 실명제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들이 이미 오랫동안 대비하여 왔기 때문에 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기위축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인위적인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단시일내에 경기회복을 바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속적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경제와 금융자유화, 그리고 소비자 위주의 경제정책 실시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튼튼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차에에 일시적인 금리상승의 위축은 있지만 금리 2단계 자유화 조치를 계획대로 실시하고 이미 제시된 정책은 일정에 따라 집행하며 아직 결정지 않은 정책은 빨리 확정지어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 강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다. 과거 30년의 압축 성장속에 배태어진 부리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무다. 이렇게 어렵고 중대한 일이라 고통과 시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젠 차분히 실명제를 분석하여 보완책을 강구할 때다. 실명제 최대의 목표가 되지 않고 경제체제의 큰 모순에서 여러 정책수단 및 목표와 조화를 이루면서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임 배 군
상경대 경제학과 산업조직론 부교수

'불확실성' 줄이는 대책마련 시급

금융실명제 휴유증

금 확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고 이미 많은 한계기업들은 지난 2.3년 사이에 도산하였기 때문에 도산기업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이며 충격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통화증발에 의한 명세채권기 일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물가인상을 유발할 수 있고 있어 신중한 대처가 요망된다. 이번 실명제가 기업의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경기가 좋지 못한 시점에서 시행되어 그 충격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 경제수준이 저하되는데다 투자수입을 감안하면 더 나빠질 여유도 없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때 실명제 실시로 인해 받는 충격보다도 오히려 충격이 작을 수도 있다.

이번 실명제 조치와 관련하여 보완책에 있어 점검으로는 첫째, 국민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조치가 중요할 것 같다. 사실 대다수 국민은 이번 조치로 큰 불편을 겪거나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또한 전격적인 실시로 또다른

세금 누락분을 추정하는 것 이외에 일반시민의 조그만 과거 잘못을 들추는 과거비리척결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추적과정에서 나타난 범죄형 비리처럼 그냥 놔두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비실명기 관행이나 제도로 용인 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경제의 흐름을 깨지 않도록 과거 지향적이기 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실명제의 실시로 과거보다 세원의 노출이 확대된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정해진 높은 세율은 하향 조정하여 과도한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실명제가 조세저항으로 인하여 조지정착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될것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선진국보다 명목세율이 높은 것은 내리고 실효세율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 단일화 반대와 같은 절차상의 형식적 문제 차원에 지나친 집착이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의 장구를 마련하는데 집착이 있었다. 올해의 범민족대회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권에 의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부정하는 상황에서 유혹한 전술이 연속적인 민주화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김영삼 정권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민간차원 통일운동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남북 협의를 기초로 정치, 사회,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을 맺도록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협약을 추진 관리할 공동관리기구를 두어 통일에 대비해나가는 그런 방향이 모색될 수 있다.

오로지 대국민을 상대로 한 운동이 주요한 축으로 되는 것이다. 지배세력의 보수세력의 준동을 막고 정권 독자적 정책 수행이 아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 수행을 위해 압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분단체제의 인식과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차이를 화해와 계약운동 내부에서도 보이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통일운동 가운데 계약체력의 통일운동은 여전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써 계약체력이 위치하는 것이 통일이 어느 특정 계층간의 이익으로 전락되지 않고 남북 모든 민족의 공동 이익을 위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형민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정치분과 연구원>

◇민간통일 운동의 전망 모색

민간 통일운동의 위기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집약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범민대)'가 올해 4차 대회를 맞이하여 지난 8월15일 '4차 대회'를 열었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서 남북 해외 동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국의 통일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제2연차 범민족대회는 1989년 당시 계약운동의 총집결지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다시 제안하고 북한과 해외동포가 이를 받아들여 1990년 제3차 대회가 시작되었다. 범민족대회가 추진될 수 있던 배경에는 1987년의 6월항쟁으로 확보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활동 공간과 1988년부터 학생운동에서부터 촉발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들 수 있다.

1988년부터 조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범민족대회와 같은 민간차원, 진보적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제안되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분단 이후의 역대정권이 통일문제를 정권안보용 차원으로 이용했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비해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던 학생 등 계약체력

의 통일운동이 정권의 탄압과 제도 언론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도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의 출범 후 언론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현실 상황은 계약운동에게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국민 눈에는 똑같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으로 보여지는 남북 허리띠

구 단일화 반대와 같은 절차상의 형식적 문제 차원에 지나친 집착이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의 장구를 마련하는데 집착이 있었다. 올해의 범민족대회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권에 의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부정하는 상황에서 유혹한 전술이 연속적인 민주화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김영삼 정권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민족 공동 이익 위한 과정 중요

이것 대회가 정부의 지원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 상황과 올해도 역시 봉쇄와 제도 속에서 어렵게 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약운동은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행사 자체에도 이분적에 곤혹감을 느낄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정권의 봉쇄와 계약체력의 강행으로 남북 해외 동포가 한자리에 모일 수도 없었던 지금까지의 범민족대회가 더 이상의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는 정권 차원의 통일정책이나 항상

민족공동 이익 위한 과정 중요

상황인식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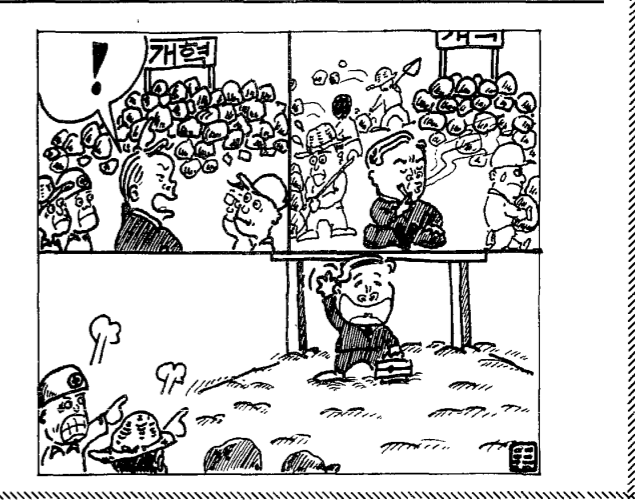
민족통일운동의 방향
과거 통일운동에서는 '7.4 공동성명'의 정신이 내면에 깔려있는 원칙이었다면 지금의 통일운동은 남북 협의를 그 것이다. 통일운동 세력은 80년대에는 '7.4 공동성명'을, 90년대에는 남북 협의를 지지하고 정부 당국에게 요구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통일운동세력을 인정하던 한편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이 정권에 있음을 인정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창

민족공동 이익 위한 과정 중요

자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던 통일 이전의 서독에서도 들어 보면 통일문제에 있어 사회운동 세력의 올바른 비판과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사회진보세력이 가질 수 있는 비판과 올바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남북협약이 국가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 효력을 갖게하고 남북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권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현 시기

東國漫評



maxon Teletopia

나만의 공간 - 나의 룸메이트
말하는 자동응답 무선전화기 맥스 AN-800M

전화시간까지 내게 다말해준다!
밖에서도 메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자동응답기능 - 이 정도는 왜야한다!
맥스 AN-800M만의 최첨단 자동응답기능

음성알림기능 - 부재중에 걸려온 전화에 시, 우물, 시간까지 음성으로 알려준다.

LED, LCD기능 - 고정장치의 LED 표시창과 휴대장치의 LCD DISPLAY로 AN-800M의 각종 기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조정기능 - 의중에서도 간단히 응답대사를 변경할 수 있고 수신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타 맥스AN-800M의 주요기능

- 150H MCA - 온신 재가기능
- 10개 번호 메모리/단축다이얼
- 외출시 자동응답기능
- 자동수신기능
- 메모리콜기능
- 재발신 기능
- 발신번호 표시기능
- 시외전화 차단기능
- 통화중 종료시향 녹음과 재발신

권장소비자가격: W169,500

통신기자 전문회사
맥스전자

서울사무소 (02) 551-1144	부산사무소 (051) 551-1144	대구사무소 (053) 551-1144	인천사무소 (032) 551-1144	대전사무소 (042) 551-1144	충주사무소 (043) 551-1144	청주사무소 (043) 551-1144	포항사무소 (054) 551-1144	울산사무소 (052) 551-1144	경주사무소 (053) 551-1144	경남사무소 (055) 551-1144	제주사무소 (064) 551-1144
광주사무소 (031) 551-1144	대전사무소 (042) 551-1144	충주사무소 (043) 551-1144	청주사무소 (043) 551-1144	포항사무소 (054) 551-1144	울산사무소 (052) 551-1144	경주사무소 (053) 551-1144	경남사무소 (055) 551-1144	제주사무소 (064) 551-1144	서울사무소 (02) 551-1144	부산사무소 (051) 551-1144	대구사무소 (053) 551-1144

합의서 이행... 민족 대단결 완성

정부, 적극적 실천의지 보여야 할 때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더불어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이것은 1970년대 7·4공동성명서와 함께 양 정부가 통일된 조국을 향해서 합의한 매우 귀중한 문서이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7·4공동성명서와 그 절차와 성격이 있어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7·4공동성명서는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공적으로 부각되어 북한을 방문하여 만들어진 문서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국민적 합의나 동의를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속조치로서 국회의 동의도 받은 바가 없다.

이것은 근대국가에서 가장 현오하고 있는 이른바 비밀외교의 성격이 띠고 있는 문서여서 처음부터 그 구속력과 실천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7·4공동성명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공적으로 다루어졌고 또 회담형식으로 정부장이 아니라 총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그 실천가능성에 보다 큰 신뢰를 두었다.

그리고 과거 7·4공동성명서가 채택된 당시를 고려하여 야당일각에서는 이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문서가 국제법상 상호승인한 일방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이러한 국민적 동의를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의 통일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와 지지 없이 정부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이란 단순히 국토의 병합을 말하는 '국토통일'이나 국가간의 통합을 말하는 '국가통일'보다는 해당 지역과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국민들의 통일 즉 '민족통일'이 중심내용이라고 할 때 이들의 합의와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국내적으로 전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더 책임성을 가지고 통일에 임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통일과 같은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처서라도 의견을 종합하고 수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이나 국민투표에 부처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효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국민적 사안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7·4공동성명서와 같이 정부의 자



○ 지난 14일 범민족대회 개막식에서 있었던 통일선봉대 입장 장면

의적 판단에 따라서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합의서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까지 같이 만들어졌지만 현급의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에서는 5월 25일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테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중추외무장관과 한원상 통일원 장관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책적 '조율'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리고 북한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남한정부는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한 북한핵문제는 한미간의 안보와 관련된 현안일 뿐만 아니라 국제

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그리고 퍼키스탄이나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에 대해서는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정부의 자세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선언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이러한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북한핵에 대한 정책이 편승하면서 북한문제 즉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기본합의서가 발표되던 당시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정부가 사회전반에서 개혁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남북문제에 관한 보수로 회귀하는 쪽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일련의 대통령의 발언이나 북한과의 회담에 대한 입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정부의 지금과 같은 입장을 통해서 앞으로 남북문제의 보다 진일보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통일운동은 반부되는 것이긴 하지만 7·4공동성명서의 정신에 따라서 '민족대단결'을 구체적으로 달성해 가는 것이 있다. 이것은 곧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기초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더 주저하고 민주적인 경향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기초해서 공동번영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군사적인 면에서 상대방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지하고 구체적인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군축운동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통일운동이다. 여기에서 이제까지의 적대감이 해소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신뢰와 협력의 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따라서 공동번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언론매체들을 북한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과장되게 말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선전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통일된 조국을 전망하면서 그들을 도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족대단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비관이나 일관된 입장을 가지지 못할 때 현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들이 자기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손규태
〈성공회신학대학교·신학〉

◇ 제4차 범민족대회 취재기

“통일은 온겨레가 주인되는 범민족적 과제”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하여란 주제로 '제4차 범민족대회' (대회장=문인회)가 지난 13일부터 서울간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달아오른 통일의 열기 속에서 개최됐다.

예년과 달리 시·군·구단위 추진위가 구성되는 등 남측추진본부의 합법·대중노선이 돋보인 이번 범민족대회에는 10만여 명이 넘는 인파가 참가했다. 그러나 올해 역시 '범민'으로 간주, 원천봉쇄를 실시한 정부측 방침으로 일장과 행사가 차질이 있었다.

또한 범민족의 대화제의 마저 묵살했던 정부측은 종교·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민간인 회의는 허가함으로써 통일운동의 분열을 유도,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세력으로서 성격을 명백히 했다.

“통일노래 한마당”, “청년학생 한마당” 등 통일일꾼들의 ‘축전’으로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 이번 범민족대회 기간중 개막식이 있던 14일 오후 5시 한양대 경인관 강당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부제의 ‘평화통일 토론회’가 있었다.

‘남북합의서 이행 실천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하여’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 이번 토론회는 통일을 위한 토대마련의 구체적 내용들이 제시된 자리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문부처 범주본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주제발표에 나선 박순경(범주본 공동본부장)씨는 우선 “유권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현상에는 준신”으로 규정하며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의 쟁점을 △체결대상자 문제 △평화협정내용문제 △요약 “군축협상을 통한 신뢰 회복으로 확고한 평화보장장치 마련”의 대안책을 주제로 “좌간통제권과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미군철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합의서



실천의지를 분명히 하는 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합의서의 의의와 이행대책에 관해 발제자 박씨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전민족의 지향을 옮겨 반영한 것’으로 남북합의서 채택의 의의를 두고 “공적으로 실천할 구체적 내용이 합의되고 이를 담보할 보장장치까지 마련된 이상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약정토론의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국(평화통일 연대회의 사무총장)씨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군과의 동시사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합의 이행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안될 것”이라 지적하며 “또한 일본 핵문제 역시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합의서 이행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손규태(성공회 신학대학교 수석)씨는 “남북합의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의 3대원칙을 담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절차를 거쳐 국회비준·국민투표가 이뤄져야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실천부재’를 비판했다.

이어 오세철(민중정치연합 의장)씨는 주제발표에서 “발제가 기술적이거나 실무적인 내용에 치우쳐 통일 ‘자체’의 본질적 문제제기가 미흡하

다’고 지적하며 변혁적 관점의 민족주체 통일관을 강조했다. 또한 남북합의서 성사배경을 ‘6공단의 책략적 이유’로 보며 ‘합의서 이행의 첫 행보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맞출 것’과 ‘평화정착 및 통일을 계급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범민족대회의 정수인 범민족회의가 15일 오전 9시 경인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문익환 범민족대회장이 사회를 본 범민족회의는 △남북한 합의서 실천 대책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책 △일본군국주의화에 대한 대책 △통일방안 협의를 위한 대책 등 4가지 안건을 만장일치로 상정하고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결의문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조국통일 운동은 온겨레가 주인되는 범민족적 운동이며 남·북·해외의 통일애국세력은 연대를 강화발전 통일을 이뤄내자”고 천명했다.

범민족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행사일정을 모두 마친 제4회 범민족대회에는 또한 어느때보다 노동자·농민·교사 등 부문계열의 열의와 참여가 높아 민간통일운동의 관료화대추면서 민족대단결의 통일지향성을 다시 확인시킨 자리로 남을 것이다.

〈이재환 기자〉

남과 북 군비증강 중지하고 구체적 군축으로 나아가야

위해 생방 정상들이 만나는 문제와 남북 사이의 현안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특사를 교환하자'고 제의 했으나 남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 제안을 기각했다. 남에서는 북한의 핵의혹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기본합의서가 담고 있는 화해, 불가침 그리고 교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담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세계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찾아오는 국가 원수들 누구에게나 북한핵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이렇다. 북한의 핵이 그렇게 한반도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위협한 것이라면 1969년 이래로 수십년동안 우리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이 땅에 들어와 있던 미군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북한핵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과 우리 정부는 미소가 가

통일로

93학년도 2학기 학사보고회가 지난 16일 오후 3시 서울·경주캠퍼스로 겸주한대 호텔에서 있었다.

예년과 달리 합동학사보고회와 양캠퍼스의 교수·직원들이 서로 만나 인사하는 환한 웃음속에서 동국이 한가죽임을 더욱 실감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 10여분이 지난해 일부교수들은 한두명씩 회의를 빠져나가기 시작해 각부처별 업무보고를 할 때는 호탕1층 커피숍에 또다른 학사보고회장을 만드는 진경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사장직사 직후 학내사태로 정계처분을 받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간부 4명이 회의장에 들어와 발언을 요구하자 나타난 교수들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부로 침입했다며 학생들의 무례함을 꾸짖는 교수들의 발언과 행동은 정숙한 회의장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어놓았다.

첫인상

회의는 계속 되었지만늘어나는 교수들의 민자리와 시간이 쏠리는 가장 중요한 부차별 보고때 '시간이 촉박하니 간략하게 해달라'는 사회장의 주문으로 이어졌고, 형식적인 업무보고로 끝이났다.

한학기 학사사업을 시작하는 학사보고 회장의 이러한 풍정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운영은 보직교수와 직원들만의 일로 내맡긴 채 강 건너 불보듯 듯한 방관자 태도는 이제는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회의장 가장 앞좌석에는 임명장을 받고 새로이 동국의 가족이 된 신규 임용교수들이 앉아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다.

과연 그들의 눈에 비친 동국의 첫인상은 어떤이었을까?

〈전현철 기자〉

100% 세시봉

천연오렌지 화이버(섬유질)가 들어있는 생생한 오렌지주스 - 100% 세시봉

새로운 세대의 나의 음료

오렌지주스도 이제 개성시대 - 오렌지 섬유질의 상큼한 맛을 느껴요. 오렌지맛 그대로 생생한 기분을 즐겨요. 천연 섬유질이 들어있는 별난주스, 세시봉. 마시는 순간부터 생생한 오렌지맛이 전해져요. / 멋진 생각, 멋진 행동으로 통하는 말 '세시봉' 세시봉은 불어로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천연화이버 오렌지주스 100%

해태 세시봉 오렌지 오렌지섬유질 함유

신제품

해태 세시봉

오렌지주스 100

◇ 타대학을 통해본 등록금 예치제

학생-학생회 신뢰가 관건

제25대 총학생회(회장-최순호-국고4)는 지난 6월8일 비상학술회의를 통해 재단학신을 위한 투쟁 방법의 하나로 2학기 등록금부족을 결의하고 이후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등록금 총학생회 예치제'를 결정했다.

총학생회는 이의 성사를 위해 방학 기간중 가정통신문의 발송과 대외보 신전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지난 19일 2학기 개강을 맞아 본격적인 실천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두차례에 걸친 가정통신문을 통해 총학생회에 등록금을 예치할 경우 미등록 제적시킴을 강경한 입장표명을 나타냈다.

지난 20일로 마감된 1차 등록금예치제 실시를 마친 학생은 전체 학생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총학생회 구좌로 납부한 학생은 60여명에 불과해 난관에 직면했다.

이와같은 학내상황속에서 본교보다 먼저 등록금 예치제를 실시했던 연세대와 경희대의 사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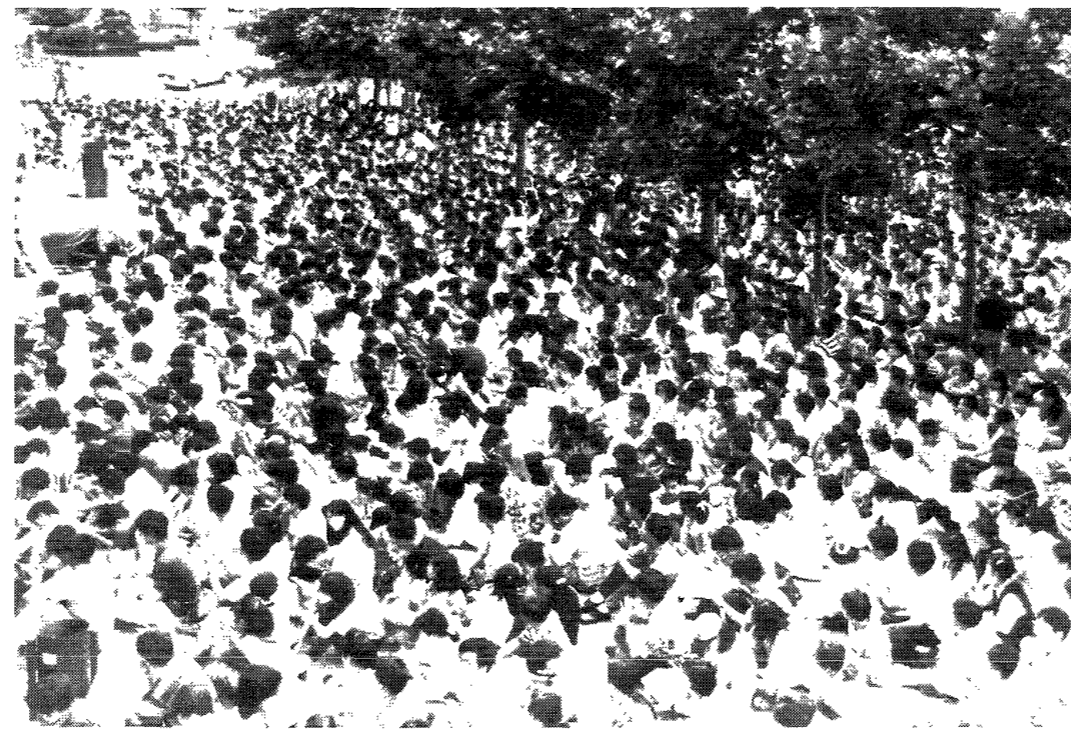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도 사업의 일환성 있는 추진력의 미비함을 보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확신을 주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 후견이다.

개다가 3월5일 학교교육에서 보낸 등록금 미납부자 조치에 대한 가정통신문은 머뭇거리던 학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데 중반의 효과적이었다.

교육부가 정한 제한 시한인 2월27일이 이미 넘어 가거나 불안한 상태였던 학부모들이 제적조치를 두려워하는 가정통신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총후구좌로 납부한 학생수는 총학생수 1만4천명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1천명 정도였으며 이것은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고 있던 5천명의 20%에 불과한 숫자였다.

연세대학교 학원 자주회 추진 위원회 위원장 전현철(국문4)군은 "처음부터 등록금 문제에 대한 경향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이끌어가는 학생들 부나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다행히 처음 맞는 이런 상황이 학우들에게 신선하게 다가 가 학우들의 관심을 모아내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전반적인 계획없이 벌어진 사업이어서 그런 큰차이를 빚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고 "큰 금액이 걸려있고 제적이라는 학교측의 위협 또한 학우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무었보다도 학우들이 혼란지기를 확실히 하는 모습들이 필요 할 것"이라며 본교에도 도움 될 만한 마디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 지난 6월8일 비상학술회의에 모인 2천5백여명의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부족을 결의했다

일반성있는 추진력

93학년도 연세대학교의 등록금 투쟁 과정에 있어서 중점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재단 진입금 확보를 통한 등록금 인상을 조정제이었다.

학교측이 일방 통치한 18% 인상과 이에 반발하고 나선 학생들의 5% 인상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2월10일에는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대운영위)에서 등록금 연기 납부를 결의하였고 사명 운동과 설문 조사를 통해 3월13일까지의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을 벌여 나갔다.

'등록금 분리 납부'라는 이름으로 등록금 총후구좌 및 납부(등록금 예치제)를 결정하게 된 것은 3월15일의 확대운영위에서 등록금 연기 투쟁이 끝난 다음에도 학교측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급한 다음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동안 타대학에 비해 학교측과의 마찰이 비교적 적어 학우가 무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는

일관성있는 추진력

이 과정에서도 사업의 일환성 있는 추진력의 미비함을 보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확신을 주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 후견이다.

개다가 3월5일 학교교육에서 보낸 등록금 미납부자 조치에 대한 가정통신문은 머뭇거리던 학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데 중반의 효과적이었다.

교육부가 정한 제한 시한인 2월27일이 이미 넘어 가거나 불안한 상태였던 학부모들이 제적조치를 두려워하는 가정통신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총후구좌로 납부한 학생수는 총학생수 1만4천명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1천명 정도였으며 이것은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고 있던 5천명의 20%에 불과한 숫자였다.

연세대학교 학원 자주회 추진 위원회 위원장 전현철(국문4)군은 "처음부터 등록금 문제에 대한 경향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이끌어가는 학생들 부나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다행히 처음 맞는 이런 상황이 학우들에게 신선하게 다가 가 학우들의 관심을 모아내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전반적인 계획없이 벌어진 사업이어서 그런 큰차이를 빚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고 "큰 금액이 걸려있고 제적이라는 학교측의 위협 또한 학우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무었보다도 학우들이 혼란지기를 확실히 하는 모습들이 필요 할 것"이라며 본교에도 도움 될 만한 마디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총학에 대한 신뢰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4월1일 3천5백여명이 모인 제3차 학생총회에서 등록금 책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등록금을 총학생회 구좌로 납부(등록금 예치제)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이전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등록금 책정에 관한 홍보물 60종 및 가정통신문 4장등을 발행했으며 과에서도 활발한 토의를 통해 중간고사와 수업거부를 결의하는 등 총학에서 과단위까지 하나의 모습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

등록금 예치제를 실시했으며 경희대 재적인원 8천5백여명중 신입생, 장학생, 복학생을 제외한 총학 구좌로 납부 가능한 인원 3천5백여명에서 1천5백여명이라는 많은 수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학원자주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사무국장 손진욱(국민윤리교육4)군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등록금에 관한 문제라 총학에서 등록금 예치제 실시를 결정할 때 많은 방심일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총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결의했던 일이고 과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기때문에 학교당국에서 예상한 6백여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총후구좌로 등록금을 납부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손군은 "등록금납부시에도 산만하게 행사할 두사람의 것이 아니라 과단위, 학원단위로 납부할 것을 유도해 등록금납부를 넘기던 학생이 커다란 학교당국의 위협에 당황해하

이까지 합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이까지 합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해 주었는데도 6명이나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후 경희대 총학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구제운동을 전개, 학교당국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얻어 이60여명을 학교측에 등록시켰다.

많은 성과물과 함께 커다란 오점을 남겼던 등록금 예치제 시행때의 심정을 학자추 사무국장 손진욱군은 "등록금 예치제를 실시할때 학생들의 총학에 대한 불신, 학교당국의 제적위협과 교육부 등록금시한때문에 총학간 부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등록금 반환중 생긴 문제로 학생들도 초조해 했다."

하지만 학원자주의 한걸로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총학을 믿고 등록금을 납부해준 학생들이 있었기에 등록금 예치제도 등록금 반환시 편리하게 계정을 보여 등록금을 예치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취재부)

이까지 합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이까지 합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해 주었는데도 6명이나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후 경희대 총학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구제운동을 전개, 학교당국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얻어 이60여명을 학교측에 등록시켰다.

많은 성과물과 함께 커다란 오점을 남겼던 등록금 예치제 시행때의 심정을 학자추 사무국장 손진욱군은 "등록금 예치제를 실시할때 학생들의 총학에 대한 불신, 학교당국의 제적위협과 교육부 등록금시한때문에 총학간 부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등록금 반환중 생긴 문제로 학생들도 초조해 했다."

하지만 학원자주의 한걸로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총학을 믿고 등록금을 납부해준 학생들이 있었기에 등록금 예치제도 등록금 반환시 편리하게 계정을 보여 등록금을 예치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취재부)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⑧ 공과대 신현소학장

과학센터 건립 추진 공대의 위상강화에 주력



1966년 산업대학을 신설하면서 시작된 본교 공과대학의 역사는 숭가본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빠른 성장을 계속해 왔다.

1969년에는 산업대학에서 현재의 공과대학으로 개편 되었으며 도시공학, 위생공학과, 연료공학과 등의 6개 학과로 출발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개명·증설되어 오늘날의 9개학과 2천여명에 이르게 됐다.

1991년 기계공학과 신설로 더욱 그 위상을 높여진 공과대학의 신현소(화학공학)학장을 만나 현재 공대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공과대학이 자랑하는 교육목표라면

—이과대학의 교육이 순수학문을 익히고 연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학문을 실생활과 결부시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해내는 산업인력을 형성하는 것이 공과대학의 지향 목표라 하겠다.

—현재 공과대학이 안고있는 문제점이라면

—매년 거론되는 것이지만 시설의 낙후와 실험기자재 부족이 가장 시급하게 직면한 문제다. 그 외에도 학과 부족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대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측의 인식 부족에서 오게 되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극복방안이라면

—이공계 대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과학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데 이 계획의 성사여부가 시설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 같다. 새로운 학과 개설 역시 이런 시설적 토대가 이뤄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인 증원으로 있게 될 신규 교수 채용과정에서의 학생 참여에 대한 생각은

—교수 채용시 지원자의 경력, 강의능력, 연구능력, 인격 등을 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강의 평가시 학생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평가까지 하기에는 학생들의 역량 이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개선해 나갈 점은

—필수 과목중 전공과목의 학점 비율을 높여 전공과목에 더욱 치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분반 기준 인원수를 낮춰 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

—졸업생들의 바람직한 사회적 출성이려면

—공대는 그 특성상 전공 과목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대기업 진출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많이 진출하여 여러 분야의 지식을 두루 섭렵한 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학장으로서 제일 기간중 목표는

—무엇보다도 교육 환경 개선과 수업 분위기 고양을 통한 공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나갈 것이며 구체적으로 실험 기자재 확보와 과학센터 건립의 가시화, 원활한 업무를 위한 직원 확보, 신규 교수 영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

—미지근으로 학생들에게 당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부하는 시간과 그 외의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보다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하길 바라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돼 주었으면 한다.

(東)

94년 12월 대졸예정자 19만여명, 85년 이래 지금까지 누적 대졸 미취업자 11만2천여명의 구직희망자가 있다.

최근 대학내의 실용주의 흐름으로 대학원 지원은 감소하고 대졸인력의 대부분이 직업 마켓시장에 뛰어들 것이 예상된다. 급변 가를 대졸 층인 자리는 8만6천(대기업1만6천, 중소기업4만1천, 국고, 교사, 공무원등 2만9천)으로 예상된다.

취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때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2회에 걸쳐 93년 하반기 업종별 취업전망 분석 기사를 게재한다.

△전자: 미래의 전자자동차 연구요원으로 전기전자계측학 엔지니어 이직종 채용은 증가할것이나 학부출업생보다는 대학원에서 자동차 내연

공학을 공부한 인재채용이 늘었다. 사무직채용은 소수, 판매 영업소의 자동차 전문분야 채용이 학과 제한없이 상당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대생의 자동차 전문 영업직채용은 여성으로의 증가추세에 힘입어 괄목할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인재의 선호경향은 이 직종 채용에서 현실로 다가올 것은 당연하다. 이 직종 채용에서 판매전문직의 일부채용도 있을 것이다.

△스틸: 축산화학연구직, 식품가공엔지니어직은 작년 대비 채용이 늘어날 것이나 식품영양학 관리직인 영양사 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 유통직군은 증가가 예상된다.

△소재: 초지전문제조엔지니어 채용은 약간호전 전망. 화장지전문축전문

기는 다소 채용이 늘어나고 이 직종에는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가능하다. 특히 중국어를 구사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제지 수월성으로 채용될

니어보다는 연구개발직의 엔지니어 채용이 증가, 지방공장 근무자 채용이 다소 승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개채용채택보다는 학교에 추천의뢰

한후 면접테스트로 채용하는 회사가 많아질 것. 화학이나 화공을 공부하고 유휴제품의 유통메카니즘에 대한 감각을 키워서 유휴 엔지니어 세일즈 문가의 길을 가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컴퓨터 회사들은 감량 경영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추세다. 전자공학엔지니어, 전산과학엔지니어, 통신엔지니어의 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특허 관리직군, SW관련

법무직, 워드스테이션지도 급변 가을 엔 노르볼만한 분야. Home Shopping 시스템 연구인 선호할 예정. 재학생 SW개발의 경험을 해 본 경력자 채용이 분야 기업에서 늘어날

전망. 대우정보시스템,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 현대전자, 삼성전자, 금성전자, 메이로posdata, 금성정보통신 등에 관심을 갖고 접근 요망.

△언론: 국제경제 전문기자직, 의학전문기자, 환경전문기자, 과학문제 전문기자, 통일문제전문기자, 스포츠 레저전문기자등 전문기자 채용이 큰 비중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아나운서의 경우 외국어 발성발음 문화에 대한 감각 평가가 주요한 내용으로 부각될. TV방송국의 프로듀서는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비판능력이 테스트의 내용에 상당부분 가미될 것으로 보인다. 영자지의 경우 영자능력테스트가 Speech능력 못지않게 강화될 듯. 균형있는 시각, 호기심, 현장을 탐을수 있는 마인드 테스트가 논에서 주요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기자직은 소수채용. 프로듀서는 드라마, 쇼, 교양, 국제관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염두에 두고 성격에 차별화된 인재 채용.

△반도체: 한국소텔이 미국에서 수요급증. 따라서 영에 능통한 어문계 출신이나 전자반도체 매체공학 엔지니어가 진출에 유리. 아남산업, 금성일렉트론,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현대전자등의 채용에 관심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연구직에는 대학원출업자 이상이 선호되고 있다. 반도체 마케팅 직종에서는 학부출신인 선호될 전망.

장지산업이로 사무관리직은 결원자 보충증등 엔지니어는 경력자 채용.

김중주
(연세대 취업담당관-직업평론가)

하반기 업종별 취업전망 상 전문화시대 부응하는 인재선호

● '93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 예산 내역 (기획조정실) (단위:천원)

수입의부		지출의부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납입금	44,607,820	인건비	27,005,298
수수료	570,500	봉급	7,724,652
입시수수료	487,000		
기타수수료	83,500		
전입 및 기부원조금	4,510,000		
전입금	3,890,000		
기부금	600,000		
국고보조금	20,000		
기본재산수입	64,000		
교육용기부재산수입	64,000		
사업수입	700,000		
사업수입	700,000		
기타수입	1,439,500		
기타수입	1,439,500		
유동자산수입	330,000		
선급금회수	330,000		
투자자산수입	100		
유가증권매각	100		
제적입금인출	3,050,000		
특별사업직접	50,000		
특별사업수입	50,000		
임의적립금 예금인출	3,000,000		
임의적립금 예금인출	3,000,000		
총계	55,271,920		

정액수당	7,994,461	무형고정자산	2,600
상여수당	4,986,183	취득지출	
정근수당	1,387,890	고정부채상환	940,993
기타수당	1,132,560	장기차입금 상환	482,000
강사료	2,115,952	차관상환	458,993
노임	15,600	적립예금지출	140,100
자정인건비	1,648,000	특별사업직접예금	40,000
관리운영비	5,295,595	지출	
여비	243,000	임의사업 적립예금	100
수용비	2,012,095	지출	
피복구입비	1,557,010	퇴직금여적립예금	100,000
제세공과금	42,600	지출	
관공비	126,000	총계	55,271,920
시설유지비	1,045,090		
교육훈련비	67,900		
행사비	156,900		
박물관관리비	45,000		
학생경비	8,606,285		
실험실습비	1,018,048		
학생복지비	7,588,237		
입시관리비	611,100		
인건비	100		
임시경비	611,000		
연구비	4,530,760		
연구비	4,530,760		
기타경비	353,722		
지급이자	251,562		
포교비	102,160		
에비비	520,000		
에비비	520,000		
투자자산지출	1,100		
유가증권매입	1,000		
임차보증금	100		
유형고정자산매입 지출	7,264,367		
기계기구매입비	1,365,500		
비품및집기매입비	159,650		
차량매입비	98,500		
도서구입비	386,000		
박물관유류매입비	33,000		
건설기계정	5,221,717		
무형고정자산취득지출	2,600		

● '92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 결산 내역 (총무처) (1992.3.1~1993.2.28) (단위:천원)

수입의부		지출의부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납입금	42,244,800	인건비	22,839,911
수수료	587,689	봉급	6,188,637
입시수수료	490,947	정액수당	7,392,546
기타수수료	96,742	상여수당	4,184,918
전입및기부원조금	5,481,631	정근수당	1,184,823
전입금	3,858,512	기타수당	1,005,211
기부금	1,604,511	차관상환	1,729,196
국고보조금	18,808	강사료	1,729,196
기본재산수입	68,537	노임	3,022
교육용기부재산수입	68,537	자정인건비	1,151,558
사업수입	685,818	관리운영비	4,163,304
사업수입	685,818	여비	213,271
기타수입	2,365,877	수용비	1,761,428
기타수입	2,365,877	피복구입비	916,734
유동자산수입	3,141,170	제세공과금	27,546
선급금회수	252,279	관공비	90,416
가지금급회수	2,888,891	시설유지비	967,356
		교육훈련비	42,309
		행사비	112,711
		박물관관리비	31,533

투자자산수입	1,449	유가증권매입	800
유동부채입금	9,551,066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9,627,399
예수금	882,829	토지매입비	1,194,000
선수금	8,668,237	기계기구매입비	2,141,661
고정부채입금	959,800	비품 및 집기매입비	131,439
장기차입금	940,200	차량매입비	51,893
임대보증금	19,600	도서구입비	433,763
제적입금인출	2,829,936	박물관유류매입비	21,565
특별사업직접금인출	846,994	건설기계정	5,653,078
임의적립금인출	1,982,942	유동부채상환	1,193,102
계	67,917,773	예수금지출	906,281
자금	△14,983,900	미지급금지출	286,821
수입	△356,637	고정부채상환	600,690
조정	15,305,757	장기차입금 상환	130,100
수입의부 합계	67,882,993	차관상환	451,890
		임대보증금환급	18,700
		적립예금지출	5,292,727
		특별사업직접금지출	1,704,581
		임의적립금 지출	3,284,386
		퇴직금여적립금지출	303,760
		총계	59,422,039
		자금	△218,868
		수입	△417,278
		조정	9,097,100
		지출의부 합계	67,882,993

박사학위

▷박정준(철학박사)=인사불교의 사회경제 사상 연구 ▲53년생 ▲본교 불교학과 ▲89년~현재 본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이철기(정치학박사)=동북아시아 軍備削減 군축에 관한 연구 ▲57년생 ▲본교 정치외교학과 ▲91년~92년 경인매일신문 논설위원



▷박정준



▷이동준



▷정해성



▷최종규



▷최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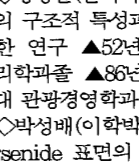
▷김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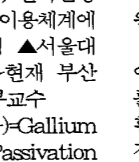
▷강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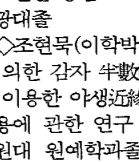
▷고상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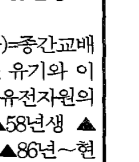
▷김구래



▷이철기



▷김기재



▷박민서



▷이금선

석사학위

(대학원)

▷이인석(해부학박사)=삼봉집상과 삼봉무사상에 대한 연구 ▲이명환(원효)·방종의 기신론과 비교연구 ▲박순자(원효)에 관한 유식학적 연구 ▲박종삼(신라)의 유식학과 기신론에 대한 연구 ▲김진진(원효)의 유식학을 중심으로 ▲안양규(조기 불교의 무아)에 관한 연구 ▲이봉순(원효) 불교에 나타난 보살사상 연구 ▲고영성(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의 연구 ▲안근과 세계를 바라보는 불교의 눈-▲김정진(원효)의 불교사상 연구 ▲Samuel Beckett의 극에 나타난 언어행위연구-Waiting for Godot와 Endgame를 중심으로 ▲김학규(J.W. von Goethe의 초기 작품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속에 나타난 자연연구 ▲조희진(원효)의 불교사상 연구 ▲김정진(원효)의 불교사상 연구 ▲김정진(원효)의 불교사상 연구 ▲김정진(원효)의 불교사상 연구

1992학년도 박사·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후기

▷박수정(영양보충제 및 건강식품의 섭취 실태와 식생활 및 건강과의 관계-서울시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이경미(가치관과 복지행동에 대한 연구-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이유희(체코)에 대한 연구 ▲김기중(한국 선가맹종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조승현(마약유사제의 실태 분석과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 ▲이인범(미국)의 대법원 군사정책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연구 ▲김영재(유엔 PKO에 관한 연구 ▲김기주(UN세계 평화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연구 ▲이봉주(한반도에서의 항공감시 작전에 관한 연구 ▲이영우(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 ▲이영우(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 ▲이영우(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 ▲이영우(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

(교육대학원)

▷윤석권(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수준)의 분석 ▲진은숙(국민학교 예비교과전담제의 교과에 관한 연구 ▲이주악(고등기술학교의 진단 및 발전에 관한 연구 ▲류용환(학교교과 지도성유형과 학교조직변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인숙(교과서의 여성화가 학교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명희(교과서의 성숙도에 따른 학교교과 지도성유형과 교사 직무성과와의 관계 ▲이정준(자기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청량로 제품을 중심으로 ▲최유식(사) 등가주 소비자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소형승용차 구매자를 중심으로 ▲김종유(구)에 대한 연구 ▲김종유(구)에 대한 연구 ▲김종유(구)에 대한 연구 ▲김종유(구)에 대한 연구

(불교대학원)

▷석길갑(원효학의 체계와 실천적 성격)에 대한 연구 ▲정성준(선비문화의 연구 ▲김준수(유식학과 삼부설에 대한 연구 ▲김정진(원효)의 불교사상 연구 ▲김정진(원효)의 불교사상 연구 ▲김정진(원효)의 불교사상 연구 ▲김정진(원효)의 불교사상 연구

(행정대학원)

▷구태하(불경을 통해 본 인간존엄의 보장과 뇌사정책에 관한 연구 ▲조기봉(한국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전병양(한국 향토방위력의 통합운동체제에 관한 연구 ▲이정현(원격교육정책)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최동호(한국환경정책의 제도와 실행)에 대한 연구 ▲정성진(행정정신화를 통한 조직관리)에 대한 연구 ▲박정현(한국 특색사업)의 추진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 ▲배출부담 ▲김동진(북한의 핵정책)에 대한 연구

(경영대학원)

▷정화수(집단지행)에 대한 연구 ▲정화수(집단지행)에 대한 연구 ▲정화수(집단지행)에 대한 연구 ▲정화수(집단지행)에 대한 연구 ▲정화수(집단지행)에 대한 연구 ▲정화수(집단지행)에 대한 연구 ▲정화수(집단지행)에 대한 연구 ▲정화수(집단지행)에 대한 연구 ▲정화수(집단지행)에 대한 연구 ▲정화수(집단지행)에 대한 연구

(정보산업대학원)

▷김정화(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원리)에 대한 연구 ▲김정화(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원리)에 대한 연구 ▲김정화(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원리)에 대한 연구 ▲김정화(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원리)에 대한 연구 ▲김정화(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원리)에 대한 연구 ▲김정화(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원리)에 대한 연구 ▲김정화(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원리)에 대한 연구 ▲김정화(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원리)에 대한 연구 ▲김정화(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원리)에 대한 연구 ▲김정화(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원리)에 대한 연구

남입금 연장 수납안내
93학년도 제2학기 학부 재학생 남입금을 다음과 같이 연장수납합니다
1. 납부기간: 1993년 8월 21일(토)~8월31일(화)
2. 납부처
구분 납부처 대상 학생
서울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 (전산으로 장차처리된 학생 포함)
서울 조흥은행에 출금된 국민은행 출금내역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등록금 고지서와 장차처리 고지서를 함께 납부하여 제출하여 차액만 등록)
경주 조흥은행 경주캠퍼스 동국대 출금소 (2) 복학생
3. 기타
1)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 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음 시 등록금 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영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알림
도서관 특별별람을 다음과 같이 발급합니다
다음
1. 신청기간: 1993.8.25.(수)~27.(금) (3일간)
2. 발급일: 1993.8.31(화)
3. 장소: 2층열람실
4. 신청자격 및 서류
가. 이번 학기 시간 강사-도서관을 신청서 1, 강사경력증명서 1, 사진 1
나.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자-도서관을 신청서 1, 수료증명서 1, 사진 1, 예치금 5만원
다. 졸업, 휴학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출입만 가능 신청서 1, 졸업 또는 휴학 증명서 1, 사진 1
라. 복학 예정자-출입만 가능 신청서 1, 복학예정증명서 1, 사진 1
5. 유효기간: 1993.9.1~1994.2.28
6. 신청기간 이후 추가 발급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공고
93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확인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기간: '93.8.30(월)~9.1(수)
2. 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학과
3. 대상: 전교생(이반락기 부락, 재입학생은 위기간에 수강신청)
4.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의 임의변경(취소, 추가)을 할 수 없음.
단, 전산처리 오류나 분할,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 본인의 부득이 한 사정 등의 경우에만 정정 가능함.
나. 교과목, 학습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교무처장

동국대학교 영자 신문사 수습기자모집 선발공고
본교 영자신문사인 The Dongguk Post는 아래와 같이 수습기자를 선발합니다.
대상: 대학원생이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격: 93학년 신입생
모집공고: 1993년 8월 20일~9월 7일
시 합: 1993년 9월 7일 오후 5시 30분
장 소: 명진관 (A103)
신청방법: 1차-필기(영어 문법, 작문, 독해)
2차-면담
문의처: 영자신문사(학생회관 지하)
TEL: 일반(260-3493), 교내(3493)
* 이외의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신문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자연과학관 개관

47억 여원 들여 3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 가교과등 자연대 전학과 수용 못해

경주캠퍼스 자연과학관 준공식이 지난 16일 오전 11시 신축 건물 1층로비에서 오복원이사장, 민병천총장, 내외인사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민병천총장은 축사에서 "자연과학관 준공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서 오복원이사장 건립계획자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오복원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자연과학관은 경주캠퍼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오늘 준공은 경주캠퍼스의 기초과학연구실 기반의 해결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무한한 창의와 발전을 기대함과 아울러 잘 활용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 "준공이 있기까지 행정절차등 여러면에서 불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복원이사장과 민병천총장의 준공이양서전달식이 있었고 준공테이프 절단 후 이날 준공식을 마감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자연과학

관은 총연건평 2천9백50평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강의실15개, 실험실습실 28개, 교수연구실33개가 갖추어졌으며 총공사비는 약 47억 5천만원으로 3년에 걸쳐 건설됐다. 자연과학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생화학, 산업안전공학, 2층은 화학과, 가정교육과, 3층은 생물학과, 4층은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수학교육과, 5층은 조경학과 순으로 되어있다. 자연과학관은 공사도중 실험실 설비시설이 설계도면상 누락되는 착오로 공사가 4개월가량 지연되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당초 학교측이 자연과학관을 '기초과학관'의 입장에서 공사를 구상한 것과 무관한 학과 신설이 원인이 되어 신설학과인 전산통계학과와 전자계산학과, 가정교육과는 공간부족사태가 예상된다. 특히 가정교육과 경우는 2층에 실습실 1개만을 배치받아



◇자연과학과 준공식에서 오복원이사장과 민병천 총장이 준공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

진홍관 강의와 함께 자연과학관 강의를 듣는 어려움을 겪게됐다.

교무처 수강정정 불가 철회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이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각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실시된다.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강신청은 정정불가 방침을 내세운 학교측과 그 근거 불충분을 주장했던 중앙교육과정학술위원회와의 마찰로 그동안 정정기간설정여부가 불분명했었다. 이처럼 매학기 수강 신청시 정정기간에 대해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학기초 1주일에서 길게

는 2주일까지 수업에 지장을 주게 되고 전산처리도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뿐만 아니라 폐강 사태가 빈번해 선의의 피해까지 생기는 등 효율적인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라며 수강신청정정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합당하다면 적극 수용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수강신청 정정기간도 같은 취지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93학년도 예산 5백52억원 확정 총수입중 80.7%가 등록금

93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 예산내역이 총5백52억7천1백92만원으로 최종 확정돼 집행에 들어간다. 작년도 예산 4백77억여원보다 약80억원가량 늘어난 올해 수입예산중 4백46억7천822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입금은 전체 수입내역의 79.7%를 차지해 전년도의 70.9%보다 약 7%가량 늘었다. 이에 반해 재단전입금을 포함한 전입 및 기부금 항목은 전년도 37억5천7백여만원보다 8억원 정도 늘어난 45억1천3백여만원이 확정됐다. 이의 총수입에서 비율은 전년도 7.9%보다 약 0.2%늘어난 8.1%다. 이와 함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이년도가 2백70억5천292만8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에서 16.3%를 차지했던 실험실습비

와 학생복지비를 포함한 학생경비는 전체지출예산의 15.5%인 86억6천252만5천원이 확정됐다. 이밖에 대외협력비에 52억9천5백59만5천원, 연구비에 45억3천76만7천원, 유형고자산매입지출에 72억6천4백36만7천원이 확정됐다. 전년도 보다 15%가량 늘어난 '93학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인건예산을 편성했으며 등록금 협상과정에서 나온 합의내용들을 최대한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채창교수 도서기증

지난 17일 기증했다. 중앙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엔 기증한 도서에 대해 '필사본인 '조선사찰승주교산목록'은 일제시대에 쓰여진것으로 불교관련 중요 자료가 아닌 이 기준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도서를 기증했다'며 '앞으로 도서 기증 동등도가 활발히 조성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의대 재파업 돌입 오는 29일 한의 중흥 한마당

지난 7월 12일 수업에 복귀했던 경주캠퍼스 한의대 학생들은 보사·행정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약사법 개정이 아무런 진척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지난 8월 9일 재파업에 돌입했다. 한의대 학생회(회장 박호진·

한외분2)는 지난 18일 오후 2시 형곡중앙에서 한의대생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구항투쟁 보고대회를 갖고 이후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이후투쟁방향에 대해 의료·정 책국장(김덕환·한외분2)은 "등록거부를 원칙으로 학교측과는 면담을 통한 미등록 제적을 막고 학생들의 학업공백을 메꾸기 위한 각종 투쟁을 실시하며 약 사법 개정을 위해 더욱 강도높은 대외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오는 29일 오후 2시 한 의회관 및 체육관에서 학부보, 학생, 교수, 선배학생 등이 참석하는 투쟁단합회의를 모으는 '한의중흥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주 총학 기성회장 면담 독자기성회 구성등 3가지 요구

경주캠퍼스 총학생회(회장=정순현·경영4)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학생회실에서 기성회장 정동배(불교학)교수를 만나 학생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총학생회측은 △기성회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담긴 기성회장 명의의 서신을 경주캠퍼스 학부보에게 발송할것 △경주에 독자적 기성회를 구축할것 △기성회규약에 충실한 운영을 할것등 3가지 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경주독자적 기성회건설을 제외한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을 얻었으며 오는 9월 15일 까지 기성회 소집이후 담 번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학기 개강이후 지난학기 사업이 시험기간등의 무생에도 불구하고 호지부지 끝난대 대한 학우들의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0월말로 예정

된 11대총학생회선거 전까지 기성회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성회 총학생회는 기성회의 파행적 운영으로 비롯된 불합리한 기성회비 책정에 반발해 기말고사 시험연기 투쟁을 벌이며 2차례의 기성회총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경주 학생회비 환불

범대회 한양대서 치뤄져 원천봉쇄로 문민정부 허구 드러내

제4차 범민족대회 남북추진본부 주최로 한양대에서 시민·학생 등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범민족 회의의 비록 한총련 범민족회의를 비롯 한총련 통일노래 한마당, 평화통일토크쇼등 다양한 행사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다. (관련기사 4면) 이번 범민족대회는 정부의 불허방침에 따라 대회 시작전인 12일부터 대회예정장소인 연세대를 경찰 2천여명이 원천봉쇄 하므로써 한양대로 옮겨 치뤄졌다. 첫째날인 13일은 범민족대회 원천봉쇄 규탄집회에 이어 제6회 대학생 통일노래 한마당 이 노천극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통일노래한마당에서는 한남대의 소리사랑이 부른 '빛 좋은 개살구'가 통일노래의 열연에 응했다. 개막식은 둘째날인 14일 오후 1시부터 노천극장에서 시민·학생 등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뤄졌다. 또한 이날 오후 4시부터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평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저녁 7시부터 펼쳐진 범민족회의 전야에는 3만5천여 명의 시민·학생들이 대운동장을

가득 채운채 1부 민족사대 세우기, 2부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우리의 결의 3부 "부처지침을 위한 우리들의 결의"를 주제로 한 범민족회의를 치뤘다. "통일언약"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전야제이후 각부별별 통일축전 행사가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9시부터 치뤄진 범민족 회의에서 범민족대회 남북추진본부와 △남북합의서 이행 △국가보안법 철폐 △일부본국주주의와 반대의 전후 처리를 위한 남북-해외의 단결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촉구 등 4개항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으며 9개항으로된 제4차 범민족대회 남북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에 일본 도시미야와 관문에서 해외본부와 북측이 각각 범민족회의를 열고 각각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이날 10시부터 8-15기 남측 및 남북합의서 국제비준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보고대회와 범민족대회 폐막식이 계속 이어졌다. 범민족대회 공식행사가 끝난 후 한총련 소속 학생 2만여명은 대외로동자에서 선전전을 한후 연세대로 이동해 범민족대회 보고대회를 가졌다.

93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p>▲조준영(이과대 물리학과 전임강사) ·83년2월 본교 물리학과출 ·85년2월 한국과학기술원물리학과 석사학위 취득 ·91년8월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물리학 박사학위 취득 ·반도체물리학 전공</p>	<p>▲이수경(인문과학대 불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78년2월 이화여대 과학교육과출 ·83년2월 이화여대 미술교육과 석사학위 취득 ·88년2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석사학위 취득 ·93년2월 서울여대 아동학과 박사과정 수료 ·아동학 실기(아동미술)전공</p>	<p>▲남경수(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1년2월 영남대 약학과출 ·84년 2월 영남대 약학과 석사학위 취득 ·90년9월 일본 동경대생명약학과 박사학위 취득 ·약리학 전공</p>
<p>▲최은관(공과대 컴퓨터공학과 전임강사) ·82년2월 본교 전산학과출 ·85년2월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석사학위 취득 ·93년7월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전산학과 박사학위 취득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p>	<p>▲이대원(자연과학대 생물학과 전임강사) ·80년2월 본교 농업생물학과출 ·89년5월 독일 Kiel대 생물학과 석사학위 취득 ·93년 1월 독일 Kiel대 생물학과 박사학위 취득 ·식물생리 전공</p>	<p>▲하은희(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7년2월 이화여대 의학과출 ·92년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보건관리학 전공</p>
<p>▲이동욱(공과대 전기공학 전임강사) ·83년2월 서울대 전기공학과출 ·85년 2월 서울대 전기공학과 석사학위 취득 ·92년 6월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전기공학 박사학위 취득 ·디지털 통신 및 신호처리 전공</p>	<p>▲김희태(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2년2월 서울대 의학과출 ·84년2월 서울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86년 12월 미 미시시피주립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86년 12월 미 미시시피주립대 의학과 박사학위 취득 ·신경외과 전공</p>	<p>▲정찬(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7년2월 중앙대 의학과출 ·92년2월 중앙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신경외과 전공</p>
<p>▲김혜숙(사범대 국어교육과 조교수) ·78년 2월 본교 국어교육과출 ·81년8월 연세대 국어교육과 석사학위 취득 ·87년8월 본교 국문과 박사학위 취득 ·국어학 전공</p>	<p>▲김정호(사범대 교육학과 전임강사) ·78년2월 서울대 교육학과출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학위 취득 ·미 일리노이대 교육학과 박사학위 취득 ·교육측정·통계·평가 전공</p>	<p>▲이정섭(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5년 2월 계명대 의학과출 ·90년 2월 계명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비노기과학 전공</p>
<p>▲김성호(사범대 교육학과 전임강사) ·78년2월 서울대 교육학과출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학위 취득 ·미 일리노이대 교육학과 박사학위 취득 ·교육측정·통계·평가 전공</p>	<p>▲안재호(인문과학대 고고미술사학과 전임강사) ·82년 2월 한국해양대 항해학과출</p>	<p>▲주재훈(상경대 산업정보학과 전임강사) ·82년 2월 한국해양대 항해학과출</p>

'한국불교의 ...' 영문판 발간 우리불교 올바른 인식에 도움 될듯

불교문화연구원(원장=서윤길·불교학)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 (The history and Culture of Buddhism in Korea)를 영문판으로 출간했다. 궁정인 연구기관에서 펴낸 불교연구 영문서적으로는 최초의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 불교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성도 겸비하고 있다.

서문은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래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했고, 각시대마다의 불교의 사상, 역사, 문화예술 및 인물과 경제활동등을 본문에서 다뤘다. 이에 대해 서윤길 불교문화연구원장은 "그동안의 한국불교는 일본에 의해 왜곡, 소외되어 왔다. 불교인들의 인식부족으로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해외에 알리기 힘든 상황에서 출간된 이 책은 외국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평했다.

책싸움 열성팬 니서너가요!

책싸움 열성팬... ○...본교가 자리한 필동의 옛 이름 목곡골의 전통이 이어지거나 하는듯 개강이 두개의 서점이 나란히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두개의 서점 탄생은 지난 4월 학교측과 학회위가 학내매장 공동관리를 위해 협의·구상한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가 호지부지 와해되면서 서점직영을 주장하는 학부위와 임대운영을 주장하는 학교경영국이 개별 서점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취지가 두개의 서점이 양립해 운영될 것을 것이라는 예견에 한 학우 "목곡골 전통이 책 싸움으로 와전돼서야 되나"라며 대하·해결 촉구.

학내 서점 2파전... 목적결 전통이 책싸움 대서야

학내 서점 2파전... ○...지난 16일 온방골에서 있었던 2학기 학사보고회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학생들의 출연으로 인한 보기도 문 광경이 연출됐다. 식순에 따라 이사가 치사가 끝난 뒤 발언을 요구하는 제정된 열성팬 ○...지난 16일 온방골에서 있었던 2학기 학사보고회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학생들의 출연으로 인한 보기도 문 광경이 연출됐다. 식순에 따라 이사가 치사가 끝난 뒤 발언을 요구하는 제정된 열성팬 ○...지난 16일 온방골에서 있었던 2학기 학사보고회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학생들의 출연으로 인한 보기도 문 광경이 연출됐다. 식순에 따라 이사가 치사가 끝난 뒤 발언을 요구하는 제정된 열성팬



한계 월의자 하나 찾아 볼 수 없어 옥에 티가 되고 있다고. 새길들을 이리 저리 둘러보며 휴게공간을 찾던 자연대 학생의 실망에 찬 한미디 "오랜 이별 끝에 만남이 다시 휴식을 찾아 헤메이니 웬만큼 니가."

